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 총지신문

총기 54년  
2025년 1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록경(황보상민)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9년 제 302 호

총기 54년 (2025년) 새해 종령 법어

## 자비의 법등을 밝혀 평안과 화합으로 정진



종령 지성 대종사

깊이 고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있어야 내가 생존하지 않는가. 한쪽만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작은 굴레에 스스로 갇힌 소아에서 일체중생을 위해 자기 굴레를 넘어선 대아로 나아가는 것이 곧 대승의 길이다.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하고, 모든 일에 봉사하기 위해 자기를 닦아가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현세를 정화하겠다는 목적을 세워야 한다.” 이후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구국도생의 대비원으로 호국불교를 통해 나라를 구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큰 서원을 세우시고 불교총지중을 창종하셨습니다.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서원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시기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동체대비 정신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길 때 이 사회는 더욱 화목하고 살기 좋은 불교정토로 거듭날 것입니다.

불교총지중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 사님께서는 한국전쟁을 겪으신 직후 자신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그리고 세상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을사년 새해는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해입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 자비의 법등을 밝혀 평안과 화합으로 정진하여 국론 화합과 경제난 극복의 원동력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끝으로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 원력으로 불자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변함없이 건강하시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2025년(총기 54년) 을사년 새해 종령 지성 합장

## 불교총지중 제21대 통리원 공식 출범

종령, 통리원장에 사령장 수여...총무 덕광·재무 법선 정사



불교총지중 제21대 통리원이 공식 출범했다. 총기 53년 12월 27일 임기가 시작되는 통리원장을 비롯한 총무부장 덕광 정사, 재무부장 법선 정사에 대한 사령장이 수여됐다. 종령 지성 예하는 당일 오전 10시 통리원 종령실에서 제21대 통리원장 록경 정사에 대한 사령장을 수여했으며, 록경 정사는 부장들에게 사령장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통리원장 록경 정사, 종령 지성 대종사, 덕광 정사, 법선 정사.

을사년 통리원장 신년사

## “화합·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2025년도 을사년 새해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우선 지난해 벌어진 정국 혼란으로 아직도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과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가지신력으로 더욱 평안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지심으로 발원합니다.

상주불변하는 법계에 해가 달라진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만 이토록 시간을 구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생의 마음입니다. 어두웠던 지난 일들은 참회로써 마음을 맑히며, 성숙한 자세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고 전도선언 하셨습니다. 오직 동체대비

심으로 모든 존재의 이익과 행복을 목표로 삶을 살 것이며,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아가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상황이 여전히 안개 속처럼 불확실할지라도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은 명약관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평정심을 유지하고, 수행과 실천의 본보기가 되어 무명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지혜와 원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화합과 상생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불자 여러분, 대일여래 비로자나 부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일체중생의 입장과 바라는 바에 따라 방편도르써 일체지지(一切智智)를 설하시니, 간절하면 반드시 원하는 바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가정에 법신 비로자



통리원장 록경 정사

나 부처님의 가지공덕이 충만하시기를 서원 하오며, 모두의 가슴마다 새긴 원력의 씨앗이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합시다.

통리원장 록경 합장

종/조/법/어

일년 동안 행복함은 새해불공 함에 있고, 평생 동안 행복함은 불퇴전에 있느니라.

지면안내

2면 교계 신년법어

5면 종단 신년사

7면 신년기획 - 기도합시다

10면 총지로 여는삶④

## 총기 54년 신년하례 법회 및 제21대 통리원장 취임 법회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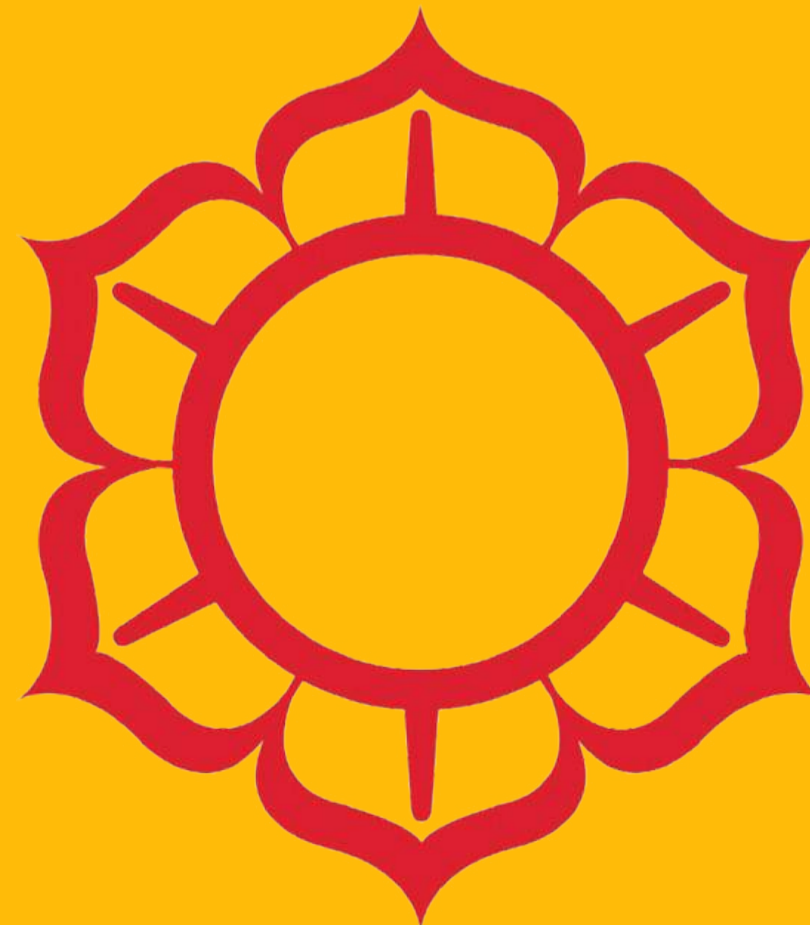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날 짜 \_ 총기 54년 1월 16일(목) 오후 1시

장 소 \_ 본산 총지사 서원당

참석 대상 \_ 스승 및 사부대중

불교총지중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



### 눈보라 쳐도 산천초목은 봄소식 준비하도다

영축산 아래 장발들의 보리밭은 찬바람에도 푸르고, 보경호의 맑은 물에는 영축산의 모습이 드리웠도다.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눈보라가 쳐도 산천의 초목은 힘차게 솟아오를 봄소식을 준비하도다.

대중이 모여서 도량마다 삼동결제를 하고, 理事(이사가) 화합하며 정진하니 화두가 타파되고 출격장부가 배출되며 그 서늘한 기상은 火宅(화택)의 뜨거운 불길을 식혀주고, 대립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감호를 베풀어 주도다.

自性淸淨心(자성정정심)으로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니 예토는 정토가 되고, 모두에게 본래 청정하고 구족한 한마음이 현전하니 여래의 지혜 덕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으며, 온갖 재앙은 저절로 소멸하고 위기는 기회가 되며 모두가 한 몸임을 자각하게 되었도다.

삼동 찬바람에도 새봄을 준비하는 보리밭처럼 곳곳

에서 찬란한 새봄을 준비하니 봄꽃 향기는 더욱 그윽하고 꽃잎은 더욱 선명할 것이로다.

激石灘聲如戰鼓  
(격석탄성여전고)하니,  
翻天浪色似銀山  
(번천낭색사은산)이로다.  
灘驚浪打風兼雨  
(탄경랑타풍겸우)이니,  
獨立亭亭意愈閑  
(독립정정의를한)이로다.

여울의 바위 치는 물소리는 전쟁터 북소리 같고 하늘을 뒤덮은 물보라 은산과 같네.

여울의 파도는 바람과 비를 함께 때리지만 홀로 서 있는 백로의 마음은 오히려 한가롭네.

대한불교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 마음 등불 밝힐 원력 세우자

피가 함께 하여 원만 성취의 문이 열립니다. 욕망이 향하는 바는 모두 꿈이요 환이며, 물거품이니 그림자를 잡으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 자루 촛불이 본래 없던 어둠을 몰아내듯 무명 번뇌 속에 한 조각 착한 마음 그 자리에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 마의 궁전을 적멸의 도량으로 빛냅니다.

언제 어느 곳이나 두루한 부처님의 설법을 가슴 깊이 느끼며 바른 진리 기쁘게 받아 지니어 금생에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크나큰 원력을 세워야 하리라.

만 중생의 행복과 국운의 융창을 일심으로 발원하니 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해탈 성불이니 일심 청정 정진하는 가운데 공덕이 함께 하며 만사형통의 서기가 비치리라.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 자기를 바로 봅시다

지 말고 멀리 관찰하며 오직 믿음으로 정진하며 자기를 바로 봅시다. 믿는 것도 나(자신)요, 믿을 대상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입니다.

사람들은 한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인지 과거사는 흘러갔고 미래사는 오지 않았으니 우리는 항상 현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치우치게 됩니다.

인적 없는 방에서 듣는 빗방울 소리(虛堂雨滴聲) 작가 선지식도 답하기 어렵구려.(作者難酬對) 알아차린 사람이라면(若謂曾入流) 그저 몰라야 하리라.(依前還不會) 모르는 줄도 모르니(曾不會) 남산 북산 갈수록 세찬 비가 쏟아지네.(南山北山轉滂霈)

부처님 가르침에 중도(中道)로 가라 하신 말씀을 놓

대한불교진각종 종인 덕일 정사



### 섬김·소통·화합으로 만다라세상 구현합시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의 크고 붉은 태양은 만다라세상의 중심인 대일여래 비로자나불의 활동상인 양, 우리 사는 세상을 장엄하고 밝게 비춥니다.

중단이든 세속이든, 안락하고 진취적인 생활의 원동력은 화합입니다. 섬김은 하심이자 존중하는 자세이며, 자비심의 발로입니다. 소통은 상호존중하는 섬김의 선물이며, 화합은 서로 이해하는 소통의 산물입니다. 섬기고 소통하고 화합하면 모두가 꽃이 되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섬김은 부조하고 공양하고 예참하는 정심입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여 섬기면 상대가 이해하고 소통하여

모두가 화합하는 예경의 세상이 열리고, 모순과 대립의 사회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안락정도로 승화합니다. 새해에는 너와 내가 심인을 품은 여래로서 섬기기에 더욱 정진하고 서원합니다.

섬겨서 소통하고 화합하여, 모든 가정이 원만하며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국제사회가 널리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새해에는 '섬겨서 소통하고 화합하여' 만다라세상의 구현을 서원합니다.

만다라세상은 법열로 넘칩니다. 다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금강무보살이 되어 섬김의 춤을 춥니다. 다함께 입에 입을 모아 금강가보살이 되어 소통의 노래를 부릅니다. 다함께 마음과 마음을 통해 금강화보살이 되어 화합의 꽃을 피웁시다.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윤경 스님



### 자비와 지혜의 길을 갑시다

이 화합과 상생의 지혜를 실천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갈등을 치유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 불자는 첫째, 지혜로운 침묵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둘째,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사회적 화합에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는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자비심으로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듬어야 할 것입니다.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범어를 전합니다.

지금의 시국은 모두 하나 되어 극복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태도는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태고종 종조이신 태고보우 국사께서 삼문원융(三門圓融)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기셨듯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언제나 평화와 화합, 자비와 지혜의 길이었습니다. 을사년에는 이 길을 따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혼란을 넘어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밝혀갑시다.

##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 사이즈 가로 25cm
- 세로 15cm
- 높이 15cm
- 정가 60,000원
- 문의 02)552-1080
-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중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을 높이 받들자”

## 12월 24일, 총기 53년 창교절 법회 전국서 봉행



총지사에서 봉행된 창교절 법회에서 교도들이 창교절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총기 53년 12월 24일 창교절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법회가 총본산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본산 총지사 법회에 참석한 종령 지성 예하는 “창교절을 맞이하여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을 높이 받들어 시대에 맞는 교화 방편을 개발하여 우리 총지종을 더욱 큰 종단으로 성장시켜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짐하자.”고 법어를 내렸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현대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교상과 사상 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 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하셨다. 1972년 12월 24일 법신비로자나불을 교주로, 육자대명을 본존으로 하여,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소의 경전으로 삼아, 삼밀과 육행을 수행 덕목으로 포함하는 입교개종의 정신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불교총지종을 창종했다.

# 국민, 민주주의, 그리고 승가 **지혜의는**

## 불교 승가 민주주의 가장 이상적 모습 강요된 안정보다 소통 이룬 화합 소중

영어 단어 리퍼블릭(Republic)은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온 말입니다. ‘공공(publica)의 것(res)’이라는 뜻으로 이를 영어로 직역하면 커먼웰스(Commonwealth)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1845년에 지리학자 미즈쿠리 쇼우고(箕作省吾)가 ‘공화(共和)’라고 번역하였고, 중국에서는 민국(民國)으로 번역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번역어를 모두 쓰고 있습니다. 공화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주(周)나라 여왕(厲王, 재위 기원전 877~기원전 828)이 폭정을 하자 기원전 841년에 국민(國人)들이 봉기하였습니다. 왕은 수도를 탈출해 체(薳, 현재의 산시성 휘저우시)로 피하였는데 이 때문에 주정공과 소목공이 대신해 국가를 운영하였습니다. 여왕(厲王)이 서거할 때까지 14년 동안 왕 없이 합의에 따라 운영하였기 때문에 공화(共和)라고 하였습니다.

조합으로서의 길드(guild) 같은 경제 단체나 종교 단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구성원은 평등하며 동일한 규범에 복종하고 그 가입과 탈퇴는 자유의지에 따랐습니다. 승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켰지만 독특하게 부처님도 승가의 일원임을 자처하였습니다. 그것은 포살과 자자(自恣, 자기 참회) 의식에 승가 구성원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허물을 지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만에 대하여 자자를 행하노니, 나에 대하여 무엇을 보고, 무엇인가 듣고, 또는 나에게 의심을 지니신 분이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 부디 지적해 주오. 죄를 알면 마땅히 고치리이다.”  
- 율장 『대품』 ‘자자건도’-

리퍼블릭(Republic)은 왕 없이 나라가 운영된다는 의미에서 공화로 번역하였지만 개인적으로는 민국(民國)이 더 적절한 번역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중국에서 국민(國人)은 지배층을 가리키는 말이며, 피지배층은 민(民)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과 민을 합쳐서 인민(人民)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주의(民主主義)란 단어도 democracy의 번역어로 민중(demos)에 의한 지배(cratia)를 의미합니다. 역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나타나 있습니다.

안거가 끝나면 행하는 자자에서는 웃어른에서부터 차례로 대중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손을 합장하여 높이 들고 의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장 먼저 대중 앞에 무릎 꿇으시고 자자를 행하셨습니다. 저는 불교의 전통에서 이 장면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교단의 통제에 커다란 구실을 하였던 초기 불교의 포살과 자자의 참회 의식은 대승 불교에 와서 그 의미가 크게 확대되고 깊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런 의식을 통해 승가가 명맥이 이어졌습니다. 민주주의가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따르는 체제라면 승가는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계엄령 사건을 보면서 힘에 의한 당장의 강요된 안정보다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 화합이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일상입니다.

불교의 승가(僧伽)는 산스크리트어 상가(sangha)의 번역어로, 승가는 본래 무리(衆)를 의미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동업

## 실지사 주교 서강 정사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 한국불교와 한국문화 발전에 공로



실지사 주교 서강 정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진우 스님)는 그동안 한국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강 정사를 추천했으며, 이를 높이 평가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인촌 장관 명의의 표창장을 지난 12월 31일 서강 정사에게 전달했다.

## 사회복지재단, 정기 이사회 개최

### 따뜻한 겨울나기, 농아인 사랑 나누기 등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새 이사장에 통리원장 록경 정사가 오는 1월 18일부터 3년간의 임기에 들어간다. 재단은 지난달 16일 통리원 회의실에서 이사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이사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우인 정사의 임기 만료를 확인하고 록경 정사를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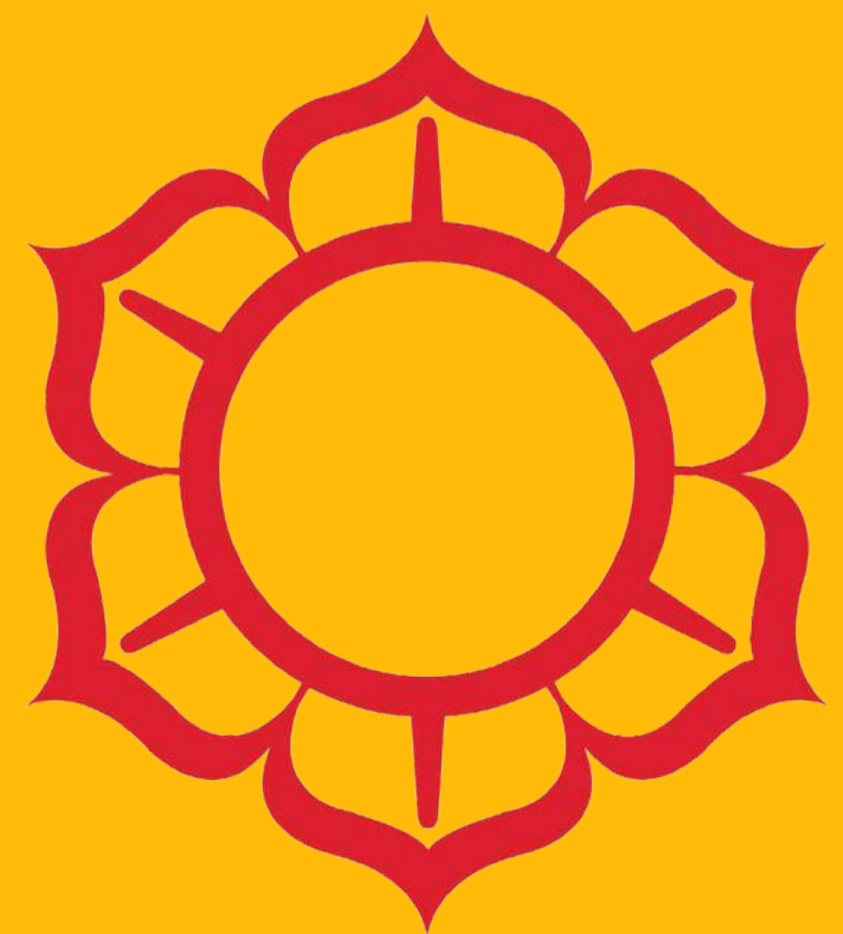
자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 사무국과 산하 시설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2025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500만 원, ‘2024 서울특별시 농아인 사랑 나누기 행사’에 후원 성금으로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보고됐다.

# 총기 54년 을사년 새해불공

##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일시** \_ 총기 54년 1월 6일(월) ~ 1월 12일(일)  
**장소** \_ 불교총지종 전국 사원 서원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 다툼은 그치고 어울림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최근에 정치를 필두로 사회적 전 영역에서 상처받은 모든 이들의 마음평화를 위해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선명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도 국제선명상대회를 통해서 K-선명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또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불교박람회 등을 통하여 한국문화의 진수와 세대 간에 화합의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 축제를 통해 국민의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하고 세계인에게 우리 전통문화와 역동성을 알리면서 지구공동체가 화평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달음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사바세계 방방곡곡에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거듭 청(請)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툼은 그치고 어울림으로 함께 사는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사부대중께서는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백천공해(百川共海)요 만상일천(萬像一天)이로다 백천의 강물은 바다에서 함께하고 만 가지 모습은 하늘에서 하나가 되오다

한 줄기 등불은 천년의 어둠을 한 순간에 없애고 지혜의 참다운은 만년의 어리석음을 잘나에 제거합니다. 을사년 신년 첫날에 떠오르는 밝은 해는 지난 날의 모든 어리석음과 어둠을 일시에 없애고 세상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대한불교진각종 총무원장 능원 정사

### 심인진리 널리 퍼져 인류에 복지 구축되길

뉘고 밖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은 안에 있으니 밖에서 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언행자 여러분! 새로 출범한 제32대 집행부는 감동교화! 새 시대를 여는 정신으로 안팎을 두루 살피면서 마중물과 같은 종무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재원을 확충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시스템화하겠습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한 을사년 새해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의 무진서원으로 심인진리가 이 땅에 널리 퍼져 밀업정도가 구현되고 온 인류에 복지(福祉)가 구축(具足)되기를 서원합니다.

을사년(乙巳年)입니다. 새해 새날을 새롭게 맞이합니다. 다시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 길을 열어갑시다.

을사년 새해 새날이 열리면서 대일(大日)의 밝은 빛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니 온 누리는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慈悲光明)으로 충만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면 매일 매일 희망이 샘솟는 새날처럼 살 수 있습니다.

진각성존 회당대종사께서는 불법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데 선량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곧 불법이라고 하시면서 항상 자성을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 '나' 내려놓고 본분에 충실해야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중생이 온갖 욕망에 빠져 미혹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 대한 집착, 즉 '아상(我相)'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옳다'는 잘못된 생각은 탐욕과 어리석음을 불러오고, 시기와 질투를 낳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내려놓으면 교만은 저절로 사라지고, 상대를 존중하는 겸손과 배려가 몸에 배어납니다. 그러면 세상은 맑고 향기롭게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참된 불자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불자가 수행에 매진해 나쁜 마음을 몰아내고 착한 마음

을 일으켜야 합니다. 세상을 '허공과 같이 어떤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연못에서 피지만 물에 젖지 않는 연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세계에 평화와 기쁨이 인류가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을사년이 되길 다 함께 축원합니다.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됐던 지난해에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새해에는 우리 사회에 불·보살님의 동체대비심이 가득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범명 스님

### 내려놓아 더 큰 희망을 키워가는 한 해 되길

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나무는 겨울에 모든 잎을 내려놓습니다. 이는 다가올 봄을 위해 더 나은 성장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겨울나무처럼 고집과 탐욕, 분노와 대립의 잎사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2025년은 내려놓음으로 시작해 더 큰 희망을 키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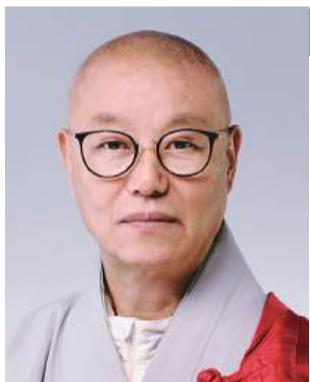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등과 대립 속에서 서로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집착 속에서 후안무치(厚顔無恥)에 빠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후안무치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갈등을 심화시키고, 진정한 화합과 발전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 여러 인연이 계합할 때 군생이 축복의 삶 살아

는 대중의 지혜와 화합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은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더욱 더 강해지는 불굴의 힘이 저 깊이 내재되어 있고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불교태고종에서도 지지고 상처받은 국민과 불자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평안을 찾

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고종은 새로운 해를 맞아 '불교명상지도사'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을 치유하고자 '불교명상지도사'들을 공인하는 민간자격발급과정을 등록, 운영하고 육성해서 배출하는 제도를 더욱 심화하고 튼튼하게 다지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중연소생(衆緣所生)의 이치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여럿의 인연이 계합(契合)할 때 비로소 만물이 큰 힘을 얻고 군생(群生)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을사년 한 해는 사회지도자들과 국민 모두가 끈은 의지로 사회 부조리와 비리를 타개하고 밝고 맑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다짐하며 시작되는 을사년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가정에 화목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분열하기 보다

##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본존다라니(은색) 13.5x17x3cm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보리수 108염주	편백염주 108염주	편보리수 108염주
₩ 50,000	₩ 40,000	₩ 10,000	₩ 29,000	₩ 3,000	₩ 40,000	₩ 15,000	₩ 40,000



중앙종의회 의장 법상인 전수

### 은혜 깊은 길은 남에게 베푸는 것

해와 자비의 정신으로 생활한다면 을사년 을 해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불교적 관점으로 볼 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상호 의존적 관계와 상호 연관적 관계를 가지면서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회 연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은 사회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삶에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은 자신도 남에게 베푸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정진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고,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살님들의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바라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서원합니다.

갑진년은 경제적 어려움과 국론 분열로 인해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부처님의 참뜻을 되새기며 지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법상 정사

### 나부터 보시와 사랑으로 자비 실천

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화합의 정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디 부처님의 지혜와 대자대비의 정신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모든 중생이 안정된 삶을 살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을사년 새해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다 함께 이겨내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배려와 배움을 실천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회제도로는 보완하기 어려운 각박한 현실에 나 자신부터 보시와 사랑으로 자

비를 실천한다면, 그 원력의 힘이 사회 화합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며, ‘나’라는 개개인이 모여 ‘국가와 국민’이라는 큰 울타리를 이룹니다. 법정 스님의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이라는 말처럼 국가는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은 국가를 생각하여 바른 지혜로써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 불자님과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지난해는 우리 한국 사회에 정치적 불안정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생이 생명의 존엄성을 자



사감원장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법일 정사

### 탐욕을 서원으로 변화시키자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며 그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종조님께서는 “신구업(身口業)은 마음으로써만이 능히 억누르고, 다만 마음 [心]인즉 신구를 능히 억누르지 못하므로, 본심진언으로써 억누르고 삼마지로써 억누르느니라.”고 하시며 “진언행자가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 염송으로 마음을 억누르고 신구(身口)를 바로 세우는 것이 탐욕심을 억누르는 성취서원이 될 것이다.” 하셨으니 올 한 해 나의 수행 목표로 삼아 용맹정진한다면 아무리 어려움과 난국이 닥쳐도 진언염송 원력으로 잘 헤쳐 갈 것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꽃은 고귀하고 진흙은 더럽다는 분별에 매달리지 말고 그 분별을 깨뜨리는 것이 올바르게 생활불교를 세우는 길일 것입니다. 진언행자 불자님들의 건강과 가내 안녕을 기원하며 육자진언 염송 정진으로 모든 서원 다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정치, 경제, 서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불자는 자비를 실천하고 육바라미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2025년은 푸른 뱀의 해로 푸른색은 성장과 적응의 시기, 뱀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올 한 해 마하반야 큰 지혜를 밝혀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유연함과 깊은 자아 성찰로 부드럽고 신중하게 상황에 적응해 나아가십시오.

<종조법설집>에 “성취서원보다 버리는 서원이 나오니라. 애착(愛着), 탐욕(貪慾), 나쁜 습관 등을 버리는 것이 더욱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서원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하며, 집착과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 자비 실천의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탐욕심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화령 정사의 담마배다 토틀아보기

### 도를 다 이룬다는 것

지혜로운 자와 평생을 사귀어도 어리석은 자는 진리를 모른다 마치 순가락이 국 맛을 모르듯이

선지식과 함께하는 것은 도를 다 이룬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도반과 함께하는 기쁨에 대해 아난다가 “도의 절반을 이룬 것과 같다”

고 했더니 붓다께서는 “훌륭한 도반과 함께하는 것은 도의 절반이 아니라 도를 다 이룬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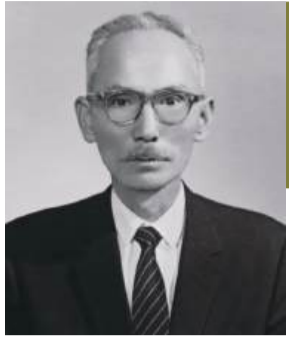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선지식과 함께 있어도 누가 선지식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런 선지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지혜를 기르고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39(명륜동) Tel.051:555:4456

# “밀교를 수법하는 진언행자는 스스로 불도를 성취할 수 있다”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38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제임  
1980.09.08 입적(세수 74세)

“법계에는 길흉화복(吉凶禍福) 선악존망(善惡存亡)의 엄연한 기관(機關)이 서 있을 뿐이지 흥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다 자기가 지어서 받게 되는 것이다.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받는 것은 하늘과 땅과 부처의 원칙이다. 착한 인을 지으면 착한 과를 받고 악한 인을 지으면 악한 과를 받는다. 효순한 인을 지으면 효순한 과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이 털끝만치도 어긋남이 없다.

인 지어서 과 받는 두 길이 있으나 착한 것을 사람이 알게 되면 사람이 돕고, 모르게 되면 법계에서 먼저 돕는다. 악한 것을 사람이 알게 되면 사람이 먼저 벌을 주고, 모르게 되면 법계에서 먼저 화를 주는 법이다. 말이 패역(悖逆)하게 나가면 또한 패역하게 돌아오고, 재물이 패역하게 들어오면 또한 패역하게 나가게 된다.

자손과 살림이 잘되게 하자면 부모 조상의 영식을 천도(薦度)하고 복업을 지어야 할 것이요, 재산을 가지고 오래 행복하게 살자면 부처님을 믿고 인과를 내증하며 육행을 실천하여야 행복이 늘 함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지은 인이 현재의 과가 되고, 작년에 지은 인이 금년에 과가 되고, 어제 인을 지은 것이 오늘에 과가 되는 것은 변함없는 인과법칙이다.

나의 착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칭찬을 많이 받게 되면 내세에 복과를 받아도 적고, 사람들이 착한 것을 몰라서 칭찬을 받지 않으면 곧 현세부터 진리의 복과를 받아도 크게 받는다.”

어떤 경우에도 세간의 가치에 따라 사람



1978년 4월 18일 총지사 설단불사 동참 스승과 사부대중.

을 평하지 않고 그의 심중을 깊이 들여다보아 진실한 대답만을 하였는데, 이는 모든 일이 법신불의 삼밀작용이라는 평소의 가르침 대로이다. 찾아오는 이를 달리 귀찮아하거나 특별히 더 아끼는 법이 없이 평등하게 대했다. 부처님 가르침과 경전대로 가르침을 주었으나 평범함 속에 비범한 방도가 숨어 있었다. 특히 밀교의 수행법은 어떤 일에도 해결책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막힌 길을 열어주었다.

“육대(六代)를 체로 하여 연기하는 세상 갖가지 일들은 반드시 모든 작용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을 신(身), 구(口), 의(意)의 삼밀(三密)이라 한다. 이는 현교의 삼업(三業)과 대조된다. 이 삼업을 정화하는 것이 곧 삼밀이니 부처님의 가지력(加持力)과 관행자(觀行者)의 공덕의 힘과 법계의 통합력에 의해 정화되는 것이므로 삼밀관행으로 공덕이 일어나는 것이다.

좀 더 확대하면 부처님이 설한 진실한 일을 실행하는 것이 신밀(身密)이다. 부처님이

설한 진실한 가르침을 입에 담아 말하는 것이 구밀(口密)이다. 부처님이 설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의밀(意密)이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양면으로 전인격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니, 그 진리를 지성이나 평면적인 사유에 그치지 않고 인격 전체에 입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 행하면 삼밀이 되는 동시에 행자의 자기 확립이 되는 것이다.”

듣는 이에 따라서는 당연한 말이나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으나, 당시 대성사의 말과 뜻과 행동이 실제로 그렇게 보였으니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특히 총지종 총본산에 주석하면서부터 밀교법과 관련된 되지 않는 말은 일체 입에 담지 않았다. 나의 몸이 법계를 대표하여 관세음보살과 다를 바 없음을 아는 믿음으로 삼밀이 진실함을 실제로 보인 것이다.

대성사는 평소 교도들에게 ‘밀교를 수법하는 진언행자는 대일여래의 삼밀과 행자의 삼밀관행이 상응할 때 법계에 평등함을 실

제로 얻고 깨달아 스스로 불도를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깨달음과 수행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현실과 생활 속에서 진실하게 생각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행을 하여 삼밀을 이루면, 법계와 행자가 평등한 현실을 깨닫게 되고 법신여래의 삼밀이 행자의 삼밀과도 같아져 결국 즉신성불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깨달음을 강조하고 주장하며 말을 앞세우는 경우는 많았지만, 현실에서 그 실재를 이룰 수 있는 법을 밀교의 삼밀행을 통해 진실하게 보이고 있었다. 생활이 수행이 되고 수행이 생활이 되며, 불법과 생활이 일치하는 교법은 대성사의 일상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었다. 그러니 어떤 경계와 와도 늘 담담히 대하고 교도들의 화급한 물음에도 구경의 대답으로, 화를 공덕으로, 경계를 수행으로 이끌었다.

현실에서 삼밀을 행해 즉신성불하고 현세를 밀엄정도로 이루자는 법문을 여러 고승

대덕의 계승을 인용하여 전했다.

이우주의 형형색색 / 법신이불 신밀이요  
이우주의 모든음성 / 법신구밀 설법이며  
형색음성 치밀해서 / 활동하는 그진리는  
모든것이 우주진리 / 법신여래 그삼밀이  
분화하여 있으므로 / 법계법신 의밀이라.  
진언행자 삼밀행은 / 모든진리 체득하는  
진언비밀 보리도며 / 즉신성불 계단이라  
여래삼밀 행자삼밀 / 일여평등 한것으로  
행자개체 연기하여 / 평등법계 자증한다.

만물의 근본은 곁림이 없어 늘 마음을 모아 수행하여 삼밀을 성취하면, 사종의 만다라가 떨어지지 않아 삼밀로 부처님의 가지력이 즉시 드러나니 불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이 몸으로 곧 성불을 이룬다고 강조하신 것이다. 손발을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것이 신밀이 아님이 없고, 입을 열어 소리 내는 모든 말이 구밀이며, 마음을 일으켜 신념을 세우는 모든 것을 의밀이라 하니 언행과 마음 씀을 수행으로 삼고 밀교행자로서 할 바를 행할 때 현실이 불국정도가 된다는 가르침이다.

또 한 가지,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의 경험은 어떤 경우에도 대성사가 화내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꽤나 불편한 만한 일이 벌어져도 태연함을 잃지 않았고 평안함을 보였다. 그러니 화가 나서 날뛰던 이도 대성사가 몇 마디 말을 건네면 곧 조용해지는 일도 있었다. 특히 서원당 주변에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삼가 고요함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였는데, 그 이유를 계승으로 가르쳤다.

서원당은 금강법계 / 비로자나 궁전이라  
정보리심 아축불은 / 그동방에 항상있고  
만법능생 보생불은 / 그남방에 항상있고  
설법단의 아미타불 / 그서방에 항상있고  
이리원만 성취불은 / 그북방에 항상있다.  
아축불과 같이살면 / 보리구할 마음나고  
보생불과 같이살면 / 공덕모여 장엄하고  
아미타불 같이살면 / 지혜열려 안락하고  
불공성취불 같이살면 / 대정전에 고여인다.



##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 욕심·성냄·어리석음 다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하루 동안 행복함은 새벽불공함에 있고  
칠일 동안 행복함은 자성불공함에 있고  
한달 동안 행복함은 월초불공함에 있고  
일년 동안 행복함은 새해불공함에 있다.  
《종조법설집》 p.110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종조님께서  
“하루 동안 행복함은 새벽 불공함에 있고,  
칠일 동안 행복함은 자성불공함에 있고, 한  
달 동안 행복함은 월초불공함에 있고, 일 년  
동안 행복함은 새해불공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새해불공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한  
해의 모든 불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새해불공과 같은 마음  
자세와 용맹정진을 1년 열두 달 동안 지속시켜야  
합니다. 올해의 새해불공으로 더  
나은 해가 되고, 실천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새해불공 중  
에 염송 정진과 함께 마음에 새겨 보고 행동  
으로 옮겨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조용히 생각해 보  
기로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간  
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존재했을 것입  
니다. 인간이 죽음과 자연 현상에 대한 공포  
를 접하면서 자기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겨  
지는 신적 대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빌거나  
구하는 행위로서 기도가 시작되었을 것입  
니다. 그리고 인간은 보다 세련된 신을 만들  
어 신의 종으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 이  
루어지고 구해진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종교  
를 만들어 기도해 왔습니다. 반면 유일하게  
불교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고  
실천하여 깨달아 부처가 되겠다는 다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마음이 행  
하는 심행입니다. 또 하나는 몸이 행하는 신  
행이고, 다른 하나는 입이 행하는 구행입니  
다. 총지종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구·삼  
밀수행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마음의 행이란 믿음을 말합니다. 믿

음은 마음의 행입니다. 신심이라고 하는 말  
은 믿는 마음, 즉 심행입니다. 불교에서 말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고, 동시에 내가 부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부처  
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법이  
있는 곳에 항상 내가 있다는, 부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신행이라는 것은 불공하고 기도하  
는 몸가짐입니다. 몸가짐은 예배입니다. 부  
처님의 가르침에 헌신한다는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 천리만리 나와 떨어  
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나의 가르침을 따  
른다면 그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내 가사 자락을 잡고, 내 그림자를  
밟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나의 가르침을 따  
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가사 자락을 잡고  
있는 사람, 즉 부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몸은 부처님  
과 가까이 있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  
지 않으면, 부처님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설사 몸이 천리만리 떨  
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가르침을 따른  
다면, 그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헌신은 부처님의 가  
르침을 따라서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  
니다.

셋째 구행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권능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고, 부  
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찬  
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거짓이 없는 진실,  
진리를 말하겠다는 실천의 의지를 표현합  
니다.

총지종 의례에 심선회향이 있습니다. 열  
가지의 선한 행으로 회향한다는 뜻입니다.  
열 가지 선한 행 중에서 입으로 하는 선한  
행이 네 가지 있습니다. 허망하고 샅된 말  
아닌 바른말로 공덕을 쌓고, 꾸미는 말 아닌

“  
내면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진리에 부합한  
자신의 할 바를 찾는 것이  
진정한 불공이며 기도  
”

실다운 진실한 말로 공덕을 쌓고, 두 말로  
이간하는 말 아닌 서로 화합한 말로 공덕을  
쌓고, 추악하고 나쁜 말 아닌 부드러운 말로  
공덕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바로 구  
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생사해탈을 위해 출가하셨  
습니다. 부처님은 생사윤회를 벗어나려는  
대원을 세우셨습니다. 부처님의 대원 속에  
는 행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부처  
님은 난행고행으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행복  
의 길을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탐내는 마음도 성내는 마음도 어리석은  
마음도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직 깊은 명상  
속에서 중도의 자리인 해탈의 경지에 들 수  
있음을 깨달으셨고, 연기법과 사성제의 도  
리를 깨우치신 것입니다. 드디어 생사해탈  
의 경지, 극락행복인 열반에 드신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행복입니다. 기도는 행복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기도는 행복을 극명하게 표  
현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소박하게 몸과 마음과 입으로 보여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욕심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다 내  
려놓고 맑은 마음, 밝은 정신, 밝은 눈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영험이 있습니다. 기도  
할 때 ‘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욕심을 붙이  
면 안 됩니다. 그저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떠오릅니  
다. 그것을 영감이고 아이디어이며 범문이  
라 합니다. 즉 인과의 법에 맞는 이치가 저  
절로 마음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  
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라 할 때 그 마음  
은 경건한 마음을 뜻합니다. 뭔가 욕심을 내  
고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  
니다. 경건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  
도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

는 방법과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과  
지혜를 찾으려면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  
다. 부처님이 하셨듯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  
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  
리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일에 집  
중하는 자체가 명상이고 생활 속에서 불공,  
기도,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받드  
시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것이 연기법에 맞는 기도요, 불공수행인 것  
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성취되기를 바라라는  
것만 기도요, 불공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마음에서 벗어  
나 마음을 고요히 하여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속에서 진리에 부합  
한 자신의 할 바를 찾는 것이 진정한 불공이  
며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이 진  
리에 부합하는 불공으로 기도하는 삶, 행복  
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후원에 감사합니다

11월 21일 ~ 12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개천사	법등	12/18	50,000	덕화사	법상인	12/11	20,000	삼밀사	묘홍	12/20	10,000	정각사	이정남	12/20	20,000
관성사	우인	11/22	10,000	동해사	법선	11/22	10,000	석관실버복지센터	이태운	11/25	10,000	제석사	이진승	11/24	10,000
	김병석	12/8	10,000		김진화	12/2	10,000		신찬호	11/25	10,000	진주호국사	적민	12/11	30,000
	보명심	12/11	10,000		이종구	12/11	7,000		박현정	11/25	20,000	초록어린이집	유지영	12/2	80,000
	무명씨	12/15	200,000		최옥순	12/11	10,000		나석원	11/25	50,000	총지사	유은혁	12/4	10,000
국광사	이순영	12/2	20,000	만보사	최옥순	12/12	10,000	김경희	11/27	200,000	김정환		12/8	10,000	
	공덕성	11/22	20,000		강명순	12/12	10,000	수인사	법상	12/11	20,000		백귀임	12/10	10,000
	수중원	11/22	10,000		김정희	12/19	10,000	시법사	해광	12/2	10,000		최영아	12/10	10,000
	밀공정	11/22	10,000		정정희	11/28	5,000	실보사	박성호	11/22	10,000	신현태	12/11	10,000	
기로스승	법지원	11/22	10,000	밀인사	박길선	12/10	10,000	실보사	이순옥	11/22	10,000	통리원	남혜	11/22	10,000
	일성혜	11/22	10,000		덕광	12/10	20,000		황성녀	11/27	10,000		김명석	12/18	10,000
	사홍화	11/22	10,000	밀행사	행원심	12/20	10,000	정우석	11/28	10,000	혜정사		조성기	11/27	30,000
	안주화	11/22	10,000		이은별	12/20	10,000	아동회관어린이집	진금선	12/5	80,000		강동화	11/28	10,000
	진원심	11/22	10,000	법천사	반아심	12/2	10,000	양지제1복지관	서영주	11/27	10,000	박대영	12/1	10,000	
	시각화	11/22	10,000	법행사	인선	11/22	1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11/25	80,000	홍춘자	12/1	10,000	
	최상관	11/22	10,000		정계월	11/22	10,000		김경희	12/16	20,000	박대성	12/1	10,000	
	연등원	11/22	10,000	벽룡사	박미경	11/25	10,000	자석사	도우	12/9	10,000	무명씨	12/3	10,000	
자선화	11/22	10,000	승원		11/22	10,000	지현		12/9	10,000	송하나	12/10	10,000		
승효제	11/22	10,000	벗고올어린이집	묘원화	11/22	10,000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11/26	80,000	송영근	12/10	10,000		
주신제	11/22	10,000		이민선	12/2	80,000		안한수	12/6	10,000	송호영	12/10	10,000		
총지화	11/22	10,000	사원명무기명	하명순	11/25	10,000	정각사	노점호	12/17	10,000	박옥자	12/10	10,000		
단음사	이규성	12/16		10,000	장태관	12/10		50,000							
		진여	12/20	10,000											

\*포항 대련리 후원금  
관성사 우인 12/20 100,000



# 하루 세 가지 살피 자신을 수양하자

일일 삼성(一日三省)이란 말은 <논어(論語)>에 나오는 증자(曾子)의 말이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를 살피 나 자신을 반성(反省)한다.

첫째, 남을 위해 일을 도와주었을 때 진심(真心)을 가지고 대했는가.

둘째, 친구와 더불어 사귀는 데 믿음성이 없는 언행(言行)을 하지 않았는가.

셋째,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傳統), 즉 미풍양속이나 스승에게서 배운 바를 제대로 익혀 행했는가.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증자의 이 말을 마음의 거울로 삼고 살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신분과 학식(學識)에 차이 없이 크고 작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사람이 허물을 벗고 정화(淨化)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반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반성이 자기 정화의 지름길이 된다는 점에서도 증자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개인이 반성하고자 할 때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수양하는 것이고, 한 가정이 반성할 때는 가정에 사랑과 화목(和睦)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며, 한 국가 사회가 반성할 때는 평온과 발전 및 정의가 무리 없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삶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여유(餘裕)를 가져보자. 찰나(刹那)의 순간일 망정 놓치고 싶지 않은 나날들을 한 번쯤 되돌아 생각하고 내일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계기를 마련해 보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도 단순한 학문 습득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날을 반성하고, 이를 거울삼아 오늘을 바로잡는 데 참뜻이 있어야 한다.

위해 매일 세 가지를 살피보듯이, 우리는 국가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역사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아야 한다. 역사를 되돌아보는 소이(所以)는, 과거를 통해 오늘의 현실을 투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혜안(慧眼)이 생기는 까닭이다. 우리는 어제를 되돌아 반성하여, 오늘을 새로이 설계하며, 미래를 충실히 계획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반성은 후회를 피하고자 고안된 필연 조건이다. 미래에 있을 후회를 피하려면 현재를 단속해야 하며, 현재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반성은 필수적이다. 후회(後悔)의 본부는 심장이고 반성의 원원지는 머리이다. 심장의 움직임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지만 머리의 회전은 항상 권장만하다. 심장이 뒤흔듯 현실과는 멀어지며 머리가 회전하는 속도만큼 현실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회는 금지의 대상이지만 반성은 권장의 미덕(美德)이라고 할 수 있다.

반성은 분명한 정리와 극복이 전제되지만, 후회는 정리되기에 앞서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말이다. 한 해의 시작과 마무리, 새해를 앞둔 견경함에 한 해를 끝내는 회한이 더해질 때, 우리네 삶의 길은 더욱 분명해진다. 끝과 시작이 함께 어울려 있는 이 시간에 “자기를 반성하는 자는 마주치는 일마다 시금석(試金石)을 이루지만, 남을 닮는 자가 생각을 움직이면 그것은 곧 위험한 창과 칼이 된다.”고 했던 <채근담>에서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이보전진(二步前進)을 위한 일보후퇴(一步後退)로 지난 일은 뒤돌아보는 것이 인생살이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회한의 정(情)과 희망의 기약으로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도 멋지게 설계해 나가자.

개개인이 자신의 참다운 성장과 발전을

시인, 전 동해중 교장 탁상달

# 대락사상은 원정의 이원론과 자주론의 완성

## 불교총지종 창종주 원정(苑淨)의 밀교사관 계승과 과제

- I. 서언
- II. 행장과 창종 이념
  - 1. 행장의 요약과 활동기 구분
  - 2. 창종 배경과 이념
- III. 밀교사관과 교판사상
  - 1. 소의경전과 교판사상
  - 2. 역사관과 준계진언
- IV. 원정사상의 계승과 과제
  - 1. 밀교사관의 계승과 발전
  - 2. 자주정신과 의례 전승
- V. 결어

### 1. 소의경전과 교판사상

2)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한국불교 종단 가운데 총지종은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을 소의경전으로 삼는 유일한 종단이다. [이하 『이취육도경』·당(唐)나라 때 반야(般若, Prajna)가 788년에 황제계 건의하여 번역한 것으로, 약경명은 『육바라밀경』·『이취육도경』이라 하고 별칭으로 『육도경』·『이취육도경』이라고도 한다. 전체 내용은 모두 10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품에서 제4품까지는 일반적인 서술로서 대승 반야에 대해서 말한 뒤, 제6품에서 제10품까지는 6바라밀 각각에 대해서 한 품씩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원정이 『이취육도경』을 소의경전으로 삼게 된 연유와 배경은 『종조법설집』 가운데 『이취육도경 초역(抄譯)』에서 그 진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하 『초역』, 소는 경전이나 논서의 글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한 글 또는 책을 말한다. 『화엄경소』·『원각경소』·『대승기신론소』 등이 대표적이다. 소를 더욱 자세히 풀이한 경우에는 ‘초(抄) 또는 ‘기(記)라는 용어를 붙인다. 『화엄경소초』·『원각경소초』·『대승기신론소별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률론소> 위키실록사전]

불교 문헌에서 논소초(論疏抄)는 경전의

내용을 주석하거나 풀이한 것으로 논장에 대해 소와 초는 더욱 상세한 풀이를 개진한 것이다. 원정은 초역을 통해 『이취육도경』을 요약하고 실천을 위주로 주요 수행을 요약해 역출하였다. 먼저 『이취육도경』은 당나라 반야삼장의 역출이다.

육바라밀을 실천 경전으로 경전의 실천 원리에 대해 수지(受持)·독송(讀誦)·서사(書寫)·해설(解說)의 4종법사를 제시하고 여래의 진신으로서 불탑신앙을 설한다. 반야바라밀의 수행에서 연기법과 사제(四諦)설, 제선교지(諸善巧智)에서 이제설(二諦說)과 삼제설(三諦說), 보살의 삼세선교지(三世善巧智) 가운데 미래선교지에서 일체지지(一切智智)를 설하는 대목도 보인다. 아뢰아식(阿賴耶識)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취육도경』은 중관, 유식사상에 입각해 보살 수행을 총체적으로 결집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정이 『이취육도경』을 소의경전으로 제시한 이유는 밀교수행의 전행(前行)으로서 현교의 교학과 수행을 종합하고 결집한 『이취육도경』의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 특히 『초역』을 통해 연기설, 오온설, 중관, 유식사상 등의 고된 해학의 섭렵을 제자들에게 요청한 배려라 생각된다.

불교수행의 도차제에서 밀교 관정을 받을

수 있는 보살은 보살십지(菩薩十地) 가운데 제8 부동지(不動地)에 이른 보살이라 하였다. 제8 부동지의 명칭은 해학 가운데 특히 공성의 흔들림 없는 견해를 이루었음을 뜻한다. 해학을 거치지 않은 밀교 수행은 맹목의 염불이나 구두선과 다름없게 된다.

『이취육도경』의 소의경전은 자칫 진언의 염송이 염불에 치우치지 않고 석존이 설한 삼학의 기초 위에 실천될 수 있도록 고려한 원정의 혜안이 담긴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고려해 볼 사항은 『이취육도경』으로부터 현장 역의 600권 『반야경』의 「반야이취분(般若理趣分)」과 불공 역의 『이취경(理趣經)』이 순차적으로 출현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불공(不空) 역의 『이취경』은 「반야이취분」의 반야사상이 정비된 밀교 관법으로 의궤화된 것으로 특히 반야사상이 밀교적으로 전개된 대락사상(大樂思想)을 설한다. 『이취육도경』과 현장 역의 「반야이취분」, 불공 역의 『이취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전은 현교로부터 밀교로 이어지는 경전의 발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이는 것이며, 대락사상은 원정이 설법한 이원론(二元論)과 자주론(自主論)의 완성이라 말할 수도 있다. 원정의 『이취육도경』 초역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도표와 같다.

정성준 박사

품명	내용
귀의삼보품 1	죄업중생이 일심으로 삼보에 참회하고 귀명하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음.
귀의삼보품 2	법신불에 귀명하여 법신 공덕을 얻음.
정계바라밀다품	지계의 종류로서 현밀 대소승계를 설함. 계의 종류와 공덕을 설함.
안인바라밀다품	인욕바라밀로 관함. 인욕바라밀로 마음을 관함.인욕바라밀로 분성을 관함.보살 안인바라밀 32종을 설함. 신구의정정을 설함.
정진바라밀다품	지혜와 선법이 정진으로 일어남. 보살은 중생을 위해 무량겁을 정진함. 지자는 정전에 정진함. 명칭복업이 정진인욕임. 정진이 대비원의 연고가 됨. 광대심을 발함. 보리심을 일으킴. 보시와 청정계로 인욕함. 오온을 환과 같이 봄. 보살대비의 10가지 승사. 자재를 얻어 현세에 무애함.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삼음.
정려바라밀다품	16중 보살 정려바라밀·정정(正定)의 중장·적정의 정려·중생심을 아는 것이 정려·보살정려바라밀·보시가 미래정계의 인이 됨. 인욕이 정려에 필요함. 방편과 지혜를 수행함.
반야바라밀다품	오바라밀이 반야바라밀에 기인함·장자상·지자의 행실·정관으로 경하함. 복덕지혜·쌍수·자비와 지혜를 겸수함. 생사가 열반심·지자(智者)공양의 공덕·보살의 보시행과 이중지(姨從智)·지계의 이중지·인욕에서 반야가 생김. 지혜안으로 진에(顯惠)를 피함. 보리과(菩提果)와 무변법문으로 일체소작을 성취함.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남구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

서초구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원장

강남구  
**초록어린이집**  
유지영 원장

성남시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원장

종로구  
**아동회관어린이집**  
진금선 원장

강남구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원장

강서구  
**벚고을어린이집**  
이민선 원장

강남구  
**세곡다함께키움센터**  
김경희 센터장

성북구  
**석관실버복지센터**  
나석원 센터장

성남구  
**양지동 제1복지회관**  
서영주 관장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종단협, 부회장에 통리원장 록경 정사 선임

## 지난달 23일 제3차 이사회, 한일불교협도 상임이사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12월 23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기 2568(2024)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부회장에 통리원장 록경 정사를 선임했다. 또 차석 부회장에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상임이사에 진각종 총무부장 법운 정사와 조계종 사회부장 진경 스님, 본원종 총무원장 법성 스님, 법륜종 총무원장 금륜 스님, 미타종 총무원장 월공 스님, 법연종 총무원장 성오 연사를 선임하고, 이사 종단인 한국대중불교불이종 탈회 신청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종단협 회원 종단은 29개 종단으로 줄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2025년도 사업계획의 건과 그에 따른 일반·특별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가결했다. 확정된 예산은 일반·특별 예산을 합해 16억 2,660만 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5월) △제11회 한국불교지도자 해외 성지순례(6월) △제12차 한·중 수행교류 한국대회(9월) △제25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중국

대회(10월) △불교진흥 학술세미나 개최(11월) △동지 나눔 문화축제(12월) △기후 환경 변화 탄소중립 등을 결정했다. 올사년 신년하례 법회는 1월 21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한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도 이날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2025년도 국제교류 사업으로 '제42차 한·일 불교문화교류 대회'

박재원 기자

# '불교학밀교학연구' 등재후보지로

## 한국밀교학회 새 회장에 정법 정사



한국 정통밀교의 양대 종단인 총지종과 진각종이 뜻을 모아 창립한 한국밀교학회(회장: 정법 정사)의 학술지 '불교학밀교학연구'가 발간 3년 만에 한국연구재단(KRF)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됐다. 한국밀교학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4시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국제체험관에서 개최된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선정을 자축했다. 등재후보지는 연구재단의 심사를 거쳐 학술지로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 학술지에 부여되는

자격으로 이미 일정 수준의 학술적 공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또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진각종 교육원장 정법 정사를 선출했다. 인사말을 통해 정법 정사는 "전임 회장인 효명 정사님의 뒤를 이어 '불교학밀교학연구'를 등재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한국밀교학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회원을 늘리고, 회원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서 의견을 넓힐 수 있는 세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진각종, "감동교화! 새 시대를 열자"

## 제32대 통리원장 능원 정사 취임법회 봉행

진각종 제32대 통리원장 능원 정사 취임 법사가 12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무진설법전에서 봉행됐다. 진각종 총인덕일 정사의 증명으로 봉행된 이날 행사에는 진각종 스승과 신교도 등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통리원장 록경 정사와 우인 정사를 비롯해 관음종 총무원장 범명,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 등도 참석해 능원 정사의 진각종 제32대 통리원장 취임을 축하했다.



능원 정사는 취임사에서 "진각 80년을 목전에 둔 종단은 다시 도약함으로써 진각 100년을 준비하고 다가올 진각 천년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새 집행부는 '감동교화! 새 시대를 열자'를 기본정신으로 위의 뜻을 잘 받들고, 아래 사정을 잘 살피서 마중물과 같은 중무행정을 펼치고자 한다. 감동교화는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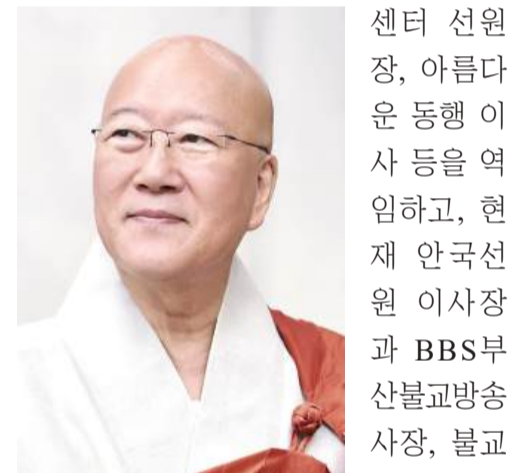
스로 감동하고 가족과 이웃을 감동시켜서 교화하고 포교하자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불사와 일의 중심은 사람"이라며 "스승은 스승대로, 신교도는 신교도대로 인재 제일이라는 정신을 견지하면서 다양하고 다변화한 영역별 인재를 길러내 종단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포부

# 불교방송 제9대 이사장에 수불 스님

## 12월 17일 제126차 이사회에서 선출

BBS불교방송의 제9대 이사장에 BBS 부산불교방송 사장 수불 스님이 선임됐다. BBS불교방송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17일 개최된 제126차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2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제9대 이사장에 수불 스님을 선출했다.



신임 이사장 수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화합할 것"이라며 "한국불교 발전과 불교방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센터 선임장, 아름다운 동행 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안국선원 이사장과 BBS부산불교방송 사장, 불교신문 사장, 대한불교조계종 계단위원, 금정총림 범어사 율주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수불 스님은 지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범어사에서 지유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7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1979년부터 89년까지 제방 선원에서 수선 안거를 성만했다. 이후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동국대 국제선

또 이사회는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진각종 포교부장 원영 정사를 만장일치로 새롭게 이사로 선임하고, 노부호·박찬국 이사 연임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총지사 교도 광고

## 혈액투석 · 줄기세포 · 암면역치료 · 자가진피주름재생술



# 연세숲내과

## Yonsei Forest Clinic

### 원장 김채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10길 17 제이메디컬빌딩 5층

## Tel. 02-496-0779 Fax. 02-496-0778



### 총지로 여는 삶④

## 왕 노릇

<삼국유사>는 고려 말 일연 스님이 불교적 관점으로 쓰신 아주 귀한 책입니다. 700년 전에 기록한 2000년 전의 일들을, 그것도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 귀족들과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의 일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 번 읽고 생각해 봅니다.

35대 경덕왕은 총담을 불러, 자신을 위해 노래를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기파랑을 찬미하는 노래를 지어 사람들이 그 뜻을 기리도록 한 스님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총담은 찬미하는 노래가 아닌, 왕의 도리를 강조하며 각성을 권하는 노래를 지어줍니다. “왕은 아버지요, 신하는 어머니며, 백성은 자식들입니다. 백성을 버리고는 왕 노릇 할 곳이 따로 없으니, 이들을 먹여 살리려 할 때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 임금답고 신하답고 백성다우면 나라가 태평합니다.”라고요.

경덕왕은 아들이 없자 표훈을 시켜 천제의 뜻을 물어보게 합니다. 딸은 되지만 아들은 안 되며 아들을 얻으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천제의 말을 듣고 아들을 부탁했으나, 나라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한 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간청을 천제는 들어주고, 총담은 거절한 셈인데, 왕께 거침없이 조언 드린 총담의 기상도 돋보이고, 자기중심적인 지도자는 조직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니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잘 드러난 기사입니다.

31대 신문왕은 선왕이신 문무왕을 위해 감은사를 짓고 ‘만파식적’을 연입니다.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는 그치고, 바람이 자고 파도가 잦아져서 이름이 만파식적이 되었습니다. 기이한 이야기라고 김부식이 빼버린 이야기를 일연 스님은 중요하게 여겨서 <삼국유사>에 기록했습니다.

나라에 각종 문제가 생겼을 때,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적인자를 뽑아 일을 맡기는 것

이고, 둘째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왕이 불안해 안절부절못하거나, 믿음이 부족해 변덕을 부린다면 일이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울 테니까요. 아마도 만파식적은 음악의 순기능을 강조한 기사가 아닐까 나름의 해석을 해 봅니다.

만파식적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32대 효소왕이 대현 살찬의 아들 부례랑을 화랑으로 만들어 무리를 이끌게 했는데, 부례랑이 통천쯤에서 북쪽 오랑캐에게 붙잡혀 가니, 무리는 흩어지고 안상만이 쫓아옵니다. 부모가 백률사 관음보살상에 기도하니 관음보살이 스님으로 부례랑 앞에 나타나 만파식적을 두 조각으로 만들어 부례랑과 안상을 태우고 자신은 거문고를 타고 마침내 돌아옵니다. 왕은 백률사와 관음보살상에 공양을 올리고 안상 등 관련자들에게 각각 상을 내립니다.

얼마 후 해성이 동쪽과 서쪽에서 차례로 나타나므로 점을 쳤더니, 모두 상을 받았으나 만파식적과 거문고가 받지 못해 그렇다고 하여, 만만파식적으로 이름을 높여줍니다. 문제의 해결에 뒤따르는 논공행상의 문제인데, 사물에까지 공을 인정하고 상을 내린다면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인정받는 조직이 결속력도 강하고 그런 조직의 리더가 존경받는다는 내용이 잘 드러납니다.

일연 스님이 제시하는 왕 노릇은, 첫째 인기보다 자신의 역할에 주목하는 자각, 둘째 임무를 맡기면 끝까지 기다려주는 믿음, 셋째 임무를 마친 후 빠짐없이 공로를 챙겨주는 자상함이라고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모두 내 한 몸의 왕입니다. 몸을 존중하고, 구석구석에서 보내오는 갖가지 신호를 맑은 정신으로 알아채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긍정적인 해결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다운 충실함을 지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총지종도가 되길 서원합니다. 이상주 교도 (자유기교가)

### 남해 정사의 위드다르마 With Dharma

현대 인도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의 수가 극히 적다. 불교 성지 주변에만 조금 있을 뿐이다. 또한 불교 성지의 유적 규모도 힌두교나 이슬람교 유적에 비해 초라하다. 보드가야 마하보다 사원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붉은 벽돌로 된 유적뿐이다. 하지만 인도 성지순례는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나에게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불교 성지순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8박 10일의 일정이었다. 세월이 흐르면 성지순례 시 눈으로 보았던 기억이나 순례 당시 느꼈던 감정과 생각이 희미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기회가 있어 환희로운 마음으로 글을 쓴다.

어릴 적 불교학생회에 다니며 막연하게 불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첫 설법을 하시고, 열반에 이르신 곳을 찾아 예를 올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막연한 생각은 총지종에 입교하면서부터 더욱 구체화하였고 비로소 올해 그 서원을 이루게 되었다.

6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드디어 11월 21일 목요일 12시 5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인도 델리로 향하였다. 9시간의 지루한 비행시간 중 비행기 창문을 통해 보았던 히말라야산맥은 인도 성지순례의 설렘을 더 크게 만들었다. 하지만 정작 인도에 도착하여 네팔에 갔을 때도 히말라야산맥은 가시거리가 좋지 않아 볼 수 없었다.

델리공항에 도착하여 든 첫 느낌은 “공기가 참 좋지 않구나!”였다. 인도로 오기 전 인도에 가면 밤에 별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인도의 대기 상태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좋지 않아 별 볼 일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실망했다. 교무 시절 총지종 교산 수련원 벽돌집 옥상에서 보았던 무수히 많은 별과 떨어지던 별뿔별의 추억은 다음을 기억하기로 했다.

델리공항에서 하루 목을 호텔로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고 험난했다. 인도의 교통 상황은 혼돈이었다. 4차선 도로에 차들이 6열로 가고 있었으며, 그 상황에서 역주행하는 차도 보였다. 차와 삼륜차, 오토바이,

## 인도성지순례기 - ① 성지순례의 시작



사진=남해 정사, 바라나시에서 겐지강 가는 길.

자전거,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무수히 들리는 경적까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교통지옥이 한 시간 이상 계속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이런 최악의 교통상황 속에서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인도 사람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았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규칙과 질서가 존재한다는 카오스 이론처럼, 혼란스러운 교통상황 속에서 조금씩 규칙과 질서가 보이기 시작했다. 인도 사람들은 운전할 때 크게 사고 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운전하고, 사고가 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은 접촉 사고는 운전하다 보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차에서 내리지조차 않았다. 그리고 뺑뺑거리는 경적 또한 다르게 들렸다. 한국 사람들은 운전할 때 “앞에 비켜, 뺑뺑!” “빨리 가야 한단 말이야! 뺑뺑!” 이렇게 자기가 빨리 가기 위해 경적을 울리지만, 인도 사람들은 “저 여기 있어요. 뺑뺑!”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뺑뺑!”하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적을 울리는 것처럼 보였다.

호텔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인도 음식을

먹었다. 원래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지만 평소 먹었던 음식인 양 나쁘지 않았다. 여러 종류의 카레가 있어 먼저 가장 연해 보이는 카레를 선택해 먹은 뒤 현지 가이드에게 한국 카레와 맛이 비슷하다고 하니, “당신이 선택한 카레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한국산 카레로 만들었다”는 가이드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델리에서 첫날을 보낸 후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성지순례 일정이 시작되었다. 둘째 날 델리공항에서 10시 30분 비행기로 출발하여 12시에 바라나시공항에 도착한 뒤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에게 처음으로 설법하셨던 사르나트(녹야원)로 향하였다.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불	교	총	지	종	을	사	교
세	구	삼	밀	보			
발	촌	극	대	도	무	문	
풍	전	등	화	관			고
수	신	세	상	살	이		
지	불	협	화	음	랑		
리	본	시	보	리	살	타	
말	불	화	살	랑	초		
유	전	합	반	상			
도	덕	성	탄	핵	소	추	권

HAPPY NEW YEAR

#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처님의 가지 공덕이 늘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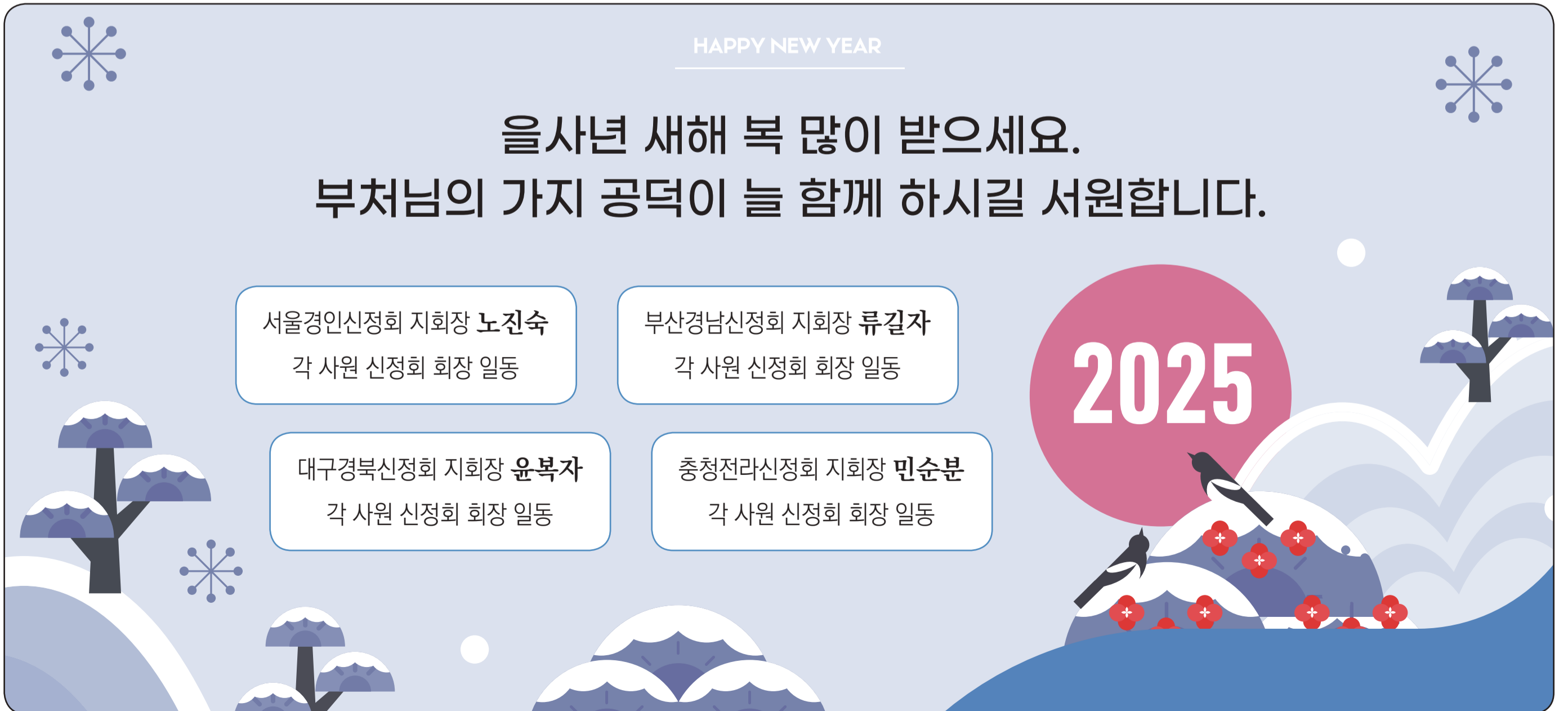
서울경인신정회 지회장 노진숙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부산경남신정회 지회장 류길자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대구경북신정회 지회장 윤복자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충청전라신정회 지회장 민순분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 2025



### “동지 팔죽에 밝은 새해 담았어요.”

총지사·정각사, 거리에서 500그릇 나눔



절기상 동지를 맞아 지난달 22일 총지사(주교: 록경 정사)와 정각사(주교: 법일 정사)가 ‘이웃과 함께 하는 동지 팔죽 나눔 축제’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펼쳤다. 교부들은 새벽부터 교도들이 함께 정성껏 쑤 동지 팔죽을 500개의 예코 컵에 담아 사원 일대 거리에서 이웃 상점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며 새해의 밝은 기운과 복이 함께하기를 서원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펼쳐진 이번 행사는 동지의 세시풍속이 점차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

에서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복과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로 진행됐다.

정각사 주교 법일 정사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전환점인 동짓날은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소원을 빌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설명하며, “팔죽의 팔은 태양을, 새알은 달을, 쌀은 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밝은 기운의 태양과 달과 별을 모두 섭취함으로써 어두운 기운이 물러가고 새해에는 밝은 복이 들어올 것”이라고 덕담했다.

### 새해 창립 30주년 맞은 ‘마니합창단’

새 단장에 총지사 김은미 교도 선출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의 새 단장에 총지사 김은미 교도가 선출됐다. 또 총무에는 총지사 김현숙 교도가 연임됐다. 마니합창단은 지난 12월 10일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은미 새 단장은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으며, 18여 년간 마니합창단에서 단원으로 활동 중이며, 총무를 역임한 바 있다. 모친을 따라 초등학교 5학년 때 정각사에 첫발을 내디딘 후 현재까지 지인 행자로서 불용포교로 교화와 종단 발전에 앞장서 오고 있다. 김 단장



은 “새해에 30주년이 되는 마니합창단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그동안 갈고닦아온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합창제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원을 세웠다.

### 서울경인교구·신정회 합동회의

신임 노진숙 지회장 첫인사

서울경인교구(교구장: 록경 정사)와 서울경인신정회(지회장: 노진숙)는 지난달 16일 본산 통리원 반야실에서 스승과 신정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었다.

총사에서 준비한 점심 공양 후 진행된 이날 회의는 통리원장 록경 정사를 비롯한 서울경인교구 스승과 신정회 지회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응명정진해 온 지난 한 해를 갈무리하는 인사와 새해 덕담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또 지난 12월 10일 새로 선출된 서울경인신정회 노진숙 지회장(지인사)이 첫인사를 했으며, 김은숙,



박정희 전 지회장이 자리를 나란히 하면서 새해에는 종단과 교화 발전에 지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함께 다짐했다.

### 석관실버, 서희와 ‘함께가요제’ 개최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가 지역 어르신 250여 명을 초청하여 ‘스타강사 서희와 함께가요제’를 지난 12월 13일, 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어르신 문화를 선도하는 센터 고우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알릴수 있도록 지역사회 화합을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가수이자 센터 노래교실 강사인 서희가 총 400만 원 상당의 LED 마스크, 티타늄 멀티워 등 다양한 상품을 후원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날 행사는 새로운 어르신 문화를 선도하는 센터 고우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알릴수 있도록 지역사회 화합을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가수이자 센터 노래교실 강사인 서희가 총 400만 원 상당의 LED 마스크, 티타늄 멀티워 등 다양한 상품을 후원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가수 서희가 진행을 맡은 경연에는 총 15명의 참가자가 각자의 멋을 가진 무대를 준비해 감동적인 공연을 차례로 선보였다. 깊은 울림을 주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관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으며 치열한 경합 끝에 백동희(66세) 어르신이 대상을 차지했다.

### 총지사 신정회장 백귀임 교도 선출

총지사 신임 신정회장에 백귀임 교도가 선출됐다. 주교 록경 정사는 창교절을 맞아 지난 12월 10일에 선출된 신임 회장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정회 회원들은 우정을 담아 전임 회장 최영아 교도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며 서로의 불연을 다졌다.



### 가로세로 총/지/문/답

①	㉑		㉒			②㉓			㉔
						③			
			④			⑤			
⑥㉕	㉖					㉗		㉘	
						⑦		㉙	
			⑧	㉚					
⑨	㉛					⑩			
			㉜	㉝					㉞
㉟								㊱	
						㊲			
								㊳	

#### 가로 열쇠

1. 한국 정통 밀교종단으로 자리이타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불교 종단
2. 올해는 뱀의 해로 00년
3. 부처님의 비밀한 세계, 비밀은 자세히 신밀, 구밀, 의밀의 00로 이루어져 있다.
4. 생활 주변의 재미나고 우스운 일을 소재로 만든 극
5. 큰 깨달음이나 진리에 이르는 데에는 정해진 길이나 방식이 없음
6. 바람 앞의 등불
7.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
8. 의견이나 주장이 엇갈려 융합되지 못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폭이 좁고 긴 끈이나 띠 모양의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10. 보살은 팔리어 0000의 출입말
11. 촉구에 불을 붙여 사용하는 화살
12. 부전자전, 모전녀전, 피는 못 속임.
13. 선악의 견지에서 보는 인격, 판단, 행위 등에 대한 가치, 도덕적인 품성
14. 대통령이나 특정 고급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

#### 세로 열쇠

- ㉑. 종교의 형세가 나날이 나아가는 모습
- ㉒. 지구상의 모든 국가나 지역이 한마을처럼 가까워짐
- ㉓. 지루하고 속이 답답한 증세
- ㉔. 광화문에 있는 대형 서점, 오픈라인 문화콘텐츠의 집합소
- ㉕. 산세, 지세, 수세 따위를 판단하여 인간의 길흉화복에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이론이나 주장
- ㉖. 사람의 키만 한 정도로 만든 불상
- ㉗.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한다는 보살
- ㉘. 가벼운 물체나 물결 따위가 바람에 조금씩 자꾸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모양
- ㉙. 불상이나 불화에서 본존을 좌우에서 모시고 있는 불상
- ㉚. 사물의 순서나 위치 또는 이치가 거꾸로 된 것
- ㉛. 서로 간에 마음이나 뜻을 모아 화목하게 어울림
- ㉜. 핵무기나 핵연료의 사용을 반대함
- ㉝.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활용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인·옴홍야호사로서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구경북교구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수련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만들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서울경인교구				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허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99-0211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담감동) (051)896-1578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055)644-5375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충청전라교구				삼말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옥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법향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황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안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홍곡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백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회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을사년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 종 령 지성 대종사

통리원장    록경 정사    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    사감원장    법일 정사

본산	서울경인교구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충청전라교구
총무부장 덕광	관성사 주교 법선	관음사 주교 정인화	건화사 주교 도관	만보사 주교 승원
재무부장 법선	밀인사 주교 덕광	단향사 주교 지홍	개천사 주교 인덕심	법황사 주교 인선
종무원 일동	법천사 주교 화령	덕화사 주교 법상인	국광사 주교 일진	중원사 주교 정정심
중앙종의회	벽룡사 주교 묘심해	밀행사 주교 금강륜	단음사 주교 일진	해정사 주교 진일심
사감원	시법사 주교 혜광	법성사 주교 남혜	선립사 주교 지명	흥국사 주교 인선
원의원	실지사 주교 서강	삼밀사 주교 묘홍	수계사 주교 자심관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지인사 주교 범우	성화사 주교 서령	수인사 주교 법상	
	총지사 주교 록경	실보사 주교 수현	승천사 주교 지선행	
		운천사 주교 우인	제석사 주교 원만원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일상사 주교 수행월		
법장원		자석사 주교 도우		
중앙교육원		정각사 주교 법일		
밀교연구소		화음사 주교 행원심		
학교법인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동해사		